

전북현대 “무패행진은 계속된다”

23경기 최다 기록... 오늘 홈에서 울산현대와 맞대결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늘 저녁 7시 울산현대를 안방인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맞상대한다. 전북은 지난 30일 광주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23경기 최다 무패 기록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번 시즌에만 리그 개막 후 최다 연승(9연승), 최다 연속득점(26경기), 최다 연속 무실점(8경기) 등 화려한 기록을 새우고 있다. 또한 리그 최다득점(44)과 최소실점(25)을 기록하는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이번 울산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4경기를 연속으로 홈에서 치르게 된다. 전북은 승점사상을 위해 지난 주말 경기에서 교체 출장한 김신욱과 지난 경기에서 골을 선보인 레오나르도, 로페즈를 출장 시킬 것으로 예고했다.

특히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로페즈가 이번 경기에서 골 사냥에 성공해 연속득점 기록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광주전 부상에서 돌아와 교체 선수로 20분가량 필드를 누빈 이동국 역시 후반 조커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비진에서는 풀백으로 깜짝 변신한 한교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수비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교원은 많은 활동량과 빼어난 개인 기술을 바탕으로 풀백에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단은 홈경기를 위해 무더운 여름 열대야를 식혀 줄 하이트 맥주 50만cc를 팬들에게 제공하고 23경기 무패를 기념한 신필 사인 축구공 23개를 팬들에게 선물 할 예정이다. 또한 동문 광장 2층에서는 선수들의 사인회를 개최한다. 최강희 감독은 “이 기록은 선수들과



구단은 홈경기를 위해 무더운 여름 열대야를 식혀 줄 하이트 맥주 50만cc를 팬들에게 제공하고 23경기 무패를 기념한 신필 사인 축구공 23개를 팬들에게 선물 할 예정이다.

팬 분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힘을 다했기 때문에 달성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며 “언젠간 끝이 있을 기록이지만 홈에서 만큼은 이 기록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팬 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체육회 청소년 오리엔티어링 캠프교실 성료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개최한 '2016 생활체육안전교실 OL(오리엔티어링) 캠프'가 2일간 무주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OL캠프교실은 36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1박2일의 일정 동안 오리엔티어링과 서바이벌게임 등 다양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OL캠프에 참여한 이은영 학생(4학년)은 “목표지점까지 찾는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하여 길을 찾는 일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민근 기자

WBC 본선 1라운드 내년 3월 고척스카이돔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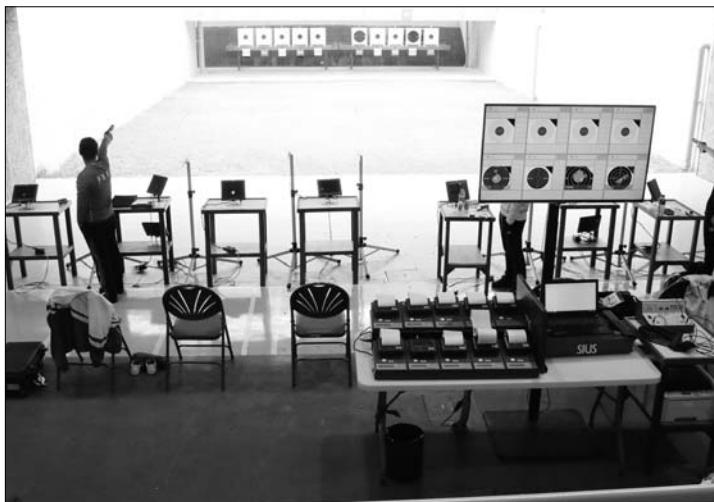
제4회WBC대회 본선 1라운드 경기가 내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러진다. WBC 대회 주관사인 WBC는 2일 2017년 제4회 WBC대회 본선 1라운드 아시아지역 개최지로 한국의 서울 고척스카이돔과 일본 도교돔을 확정 발표했다. 세계 최고기량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야구 국가대표팀인 2017 WBC대회는 4년 주기로 열려왔다. 이번 WBC에는 총 16개국 참가한다.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은 시드배정으로 본선에 자동 진출했고 나머지 4개국은 예선전을 통해 확정된다. 본선 1라운드는 4개국씩 4개조로 나뉘어 4개국에서 본선 개최된다. 각조 상위 2개팀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하고, 2라운드 상위 2개팀 총 4개팀이 결선라운드를 치른다. 우리나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본선 1라운드 B조 경기는 우리나라와 대만, 네덜란드 그리고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브루클린 예선(브라질·영국·이스라엘·파키스탄 참가)의 우승팀이 참가한다. /김민근 기자

리우올림픽 출전 '효자종목' 사격대표팀 환경 적응 집중

조명이 너무 밝고 천장 기준 훈련장 보다 2배 이상 높아 당일 컨디션 중요하지만 승패는 사격장 적응에 달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하는 사격대표팀이 낮은 사격장 환경에 적응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사격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효자종목으로 종합순위 5위에 오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특히 권총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따냈다. 리우올림픽에서도 런던대회에 버금가는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개인종목 3연패를 노리는 진종오(37·kt), 2연패에 도전하는 김장미(24·우리은행)를 비롯해 한승우(33·kt), 이대명(28·한화켄리아) 등이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리우올림픽 슈팅센터의 낮은 환경이라는 평가다. 선수들은 지난 4월 이곳에서 열린 프레올림픽에서 낮은 환경에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경험했던 권총 사격장과 환경이 판이하게 달랐다. 조명이 지나치게 밝았고, 천장이 기존에 훈련하

던 곳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슈팅센터의 사대과 표적 사이에는 LED 조명이 있다. 결선이 열리는 사격장에는 LED 조명 10개가 설치된다. 대표팀은 프레올림픽을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와 최대한 현지 사격장의 밝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적응훈련을 가졌다. 천장은 손대 수 없었다. 이대명은 2일(한국시간) 훈련을 마치고 “처음에는 너무 밝은 조명 때문에 총열이 잘 보이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한국에서 한 달 이상 적응하고, 이곳에 와서도 계속 이 조명에 적응하고 있어 나아진 편이다”고 말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사격에서 소음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선수들은 여러 국제대회를 통해 적응했다. 그러나 리우올림픽에선 결선에 한해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했다. 보다 더 대중 친화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했다. 그나마 선수들이 귀마개를 착용하고 경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하는 사격대표팀이 낮은 사격장 환경에 적응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에 임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결선이 열리는 배경의 색깔이 바뀌었다. 프레올림픽에서 검정색이었지만 올림픽에 들어가면 흰색 배경에서 쏘야 한다. 당일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격

의 리우올림픽 승패는 사격장 적응에 달려 있다.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가 대회 첫날인 7일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민근 기자

손흥민, 리우올림픽 주목해야할 축구선수 5인

신태용호에 합류한 손흥민(24·토트넘)이 2016 리우올림픽에서 주목해야할 축구선수 5인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일(한국시간) “브라질이 금메달을 위해 네이마르(24·FC바르셀로나)를 불러들였다”며 네이마르 외 리우올림픽에서 지켜봐야할 5인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브라질의 가브리엘 헤수스(팔메이라스), 독일의 울리안 브란트(레버쿠젠)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 매체는 “지난해 2200만 파운드(약 400억원)에 잉글랜드로 이적한 손흥민은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레버쿠젠(독일) 시절 만큼의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는 여전히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의 키”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소속의 앙헬 코레아(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지오반니 시메오네(리버풀)가 손흥민 다음으로 거론됐다. 와일드카드로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손흥민은 전날 브라질 사우바도르에 입성해 올림픽축구대표팀에 합류했다. 대표팀은 오는 5일 피지와의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 경기를 시작으로 독일(8일), 멕시코(11일)와 맞붙는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